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간의 관계*

김향련 고재홍⁺
경남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유사성과 상대방에 대한 이해 크기가 결혼만족과 관련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부부간 유사성과 이해 크기가 결혼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성격과 결혼가치관 영역별로 그것들이 차이가 있는지, 남편과 부인의 경우 다른지 등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부부 155쌍의 대상으로 각각에게 자신과 배우자의 성격과 결혼가치관에 대한 지각을 알아보았다. 성격 지각의 경우는 5요인 성격이론에 근거하여, 결혼가치관 지각의 경우는 Acitelli 등(2001)의 연구를 참조한 4 영역에서 부부의 자기지각과 배우자 지각을 측정하였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실제 유사성(남편-부인 자기지각의 일치도), 가정된 유사성(자기지각과 상대방지각의 일치도), 이해(상대방에 대한 지각과 상대방의 자기지각의 일치도)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주요 결과는 첫째, 성격 영역에서는 실제 및 가정된 유사성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더 컸으며, 결혼가치관 영역에서는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가 다른 일치도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기간은 모든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와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셋째, 성격의 경우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이 높았다. 그러나 결혼가치관의 경우 남편은 실제유사성과 부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은 반면, 부인은 남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이 높았다.

주요어 : 부부,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 결혼만족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결혼생활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부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국내외에서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다룬 많은 연구들은 부부 자신과 상대방의 특징이나 행동방식(예 : 의사소통 방식)에 따른 결혼만족도 효과를 다루고 있다(권정혜, 2000; 김선영, 김영희, 2005; 이정은, 이영호, 2000). 그러나 부

부간 실제의 특성차이보다는 지각이나 생각의 차이가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예 : 박영화, 고재홍, 2005; 이종선, 권정혜, 2002; Acitelli, Douvan, & Veroff, 1993). 특히 최근의 연구들에서 부부 각자의 개별 특징보다는 부부간의 유사성과 상호성 등과 같은 상호작용적 변인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고재홍, 전명진, 2003; 박영화, 고재

* 본 연구는 2006학년도 경남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 : 고재홍, (631-701) 경남 마산시 월영동 449 경남대학교 심리학과, 전화 : 055) 249-2182, E-mail : kopsy@kyungnam.ac.kr

홍, 2005; Acitelli, et al., 1993; Byrne & Blaylock, 1963; Morry, 2007).

결혼만족

결혼만족도의 정의는 학자마다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인이 결혼 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즐거움, 만족, 행복 등과 같은 주관적 감정으로 정의한다(예 : Hawkins, 1968). 이는 개인의 욕구가 남편(혹은 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충족되어지는 정도를 말한다(Rice, 1979). 현재 결혼만족도는 결혼적응, 결혼안정성, 결혼의 질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Acitelli 등(2001)은 기혼자들을 대상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을 통해 행복한 결혼생활의 13가지가 중요 조건들을 찾아냈다. 이 조건들은 경제적 여유, 애정 표현, 성적 만족, 종교나 정치 등에 대해 부부가 비슷한 신념을 갖고 있는 것, 상호신뢰하기, 집안 일 함께 하기, 자녀 양육하기, 중요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애착, 서로에 대한 감정의 공유, 서로 돌보기, 부부관계의 지속에 대한 확신, 함께 지내기 등이다. 국내에서도 결혼만족도를 다룬 초기의 연구들은 주로 가정의 사회경제적 변인들(예 : 가계수입, 결혼방법, 자녀수)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일부의 연구들은 내외통제성과 같은 성격특성이나 교육수준 등과 같은 남편과 부인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다루었다(예 : 이정은, 이영호, 2000). 또한 일부의 연구들은 배우자의 폭력, 배우자의 공격성이나 의사소통 양식과 같은 배우자의 특성이 자신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다루었다(예 : 이종선, 권정혜, 2002).

최근에는 부부 각자의 개별 특징보다는 부부간의 이차(dyadic) 변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재홍, 전명진, 2003; 박영화, 고재홍, 2005; Acitelli, et al., 1993).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이차 요인으로서 부부의 태도유사성을 들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한 대상 X에 대한 두 사람의 태도가 비슷한 성향을 보일 때 두 사람은 호감을 가지게 되며, 대상 X에 대한 서로 다른 태도는 서로에 대한 불만과 거리감을 느끼게 한다(예 : Byrne & Blaylock, 1963). 이것을 유사성 효과(Berscheid & Walster, 1978; Byrne, 1971)라고 하며, 실제의 친구들과 연애 상대자들의 태도를 다룬 상관연구들뿐만 아니라 서

로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한 실험연구들에서도 유사성 효과가 입증되었다(Schachter, 1951). 일반적으로 자신과 유사한 태도를 지닌 사람을 더 좋아하는 유사성 효과는 부부들의 경우에도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Byrne & Blaylock, 1963).

특히 부부는 배우자 선택에서 태도를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결혼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결혼한 부부들은 교육수준, 지능, 가치관 등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 부부간 상관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허윤미, 2001). 또한 몇몇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태도나 성격이 유사한 부부들이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해 그들의 결혼생활에서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Allen & Thompson, 1984; Corsini, 1956; Ferreira & Winter, 1974).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부부간의 성격, 취미, 결혼가치관, 가치관의 4가지 영역에서 부부 유사성을 프로파일 형태로 측정하였으며, 이 중 부부간 결혼가치관 프로파일의 유사성 크기가 결혼만족도를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변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뿐만 아니라 부부는 결혼생활을 하면서 서로 여러 측면에서 유사해 질 가능성도 있다. 부부가 결혼기간이 지남에 따라 각자의 여러 가지 태도, 가치관 및 선호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차이가 드러나면 부정적 감정과 후회, 갈등 등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결혼 이후 부부 관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도 있다. 부부 중 어느 쪽도 상대방 쪽으로 태도나 가치관 등을 일치시킬 의도가 없다면 이러한 불일치가 갈등을 유발하여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Hill & Peplau, 1998).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congruence of perceptions)란 자신과 배우자의 생각이나 지각이 일치하는 정도이다(Acitelli, Kenny, & Weiner, 2001). 특히 부부간 태도, 성격, 가치관 등에서의 유사성(similarity)이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다(예 : 고재홍, 전명진, 2003; Acitelli, et al., 2001; Byrne & Blaylock, 1963). 이전의 연구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한 부부는 그렇지 못한 부부보다 결혼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 예를 들어 고재홍과 전명진(2003)은 가치

관, 결혼관, 취미, 성격의 네 영역에서 각자의 프로파일에서 근거한 부부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모든 영역에서 부부는 어느 정도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었으나, 이중 결혼관의 유사성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모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와 같은 특별한 대인관계의 지각에는 유사성 이외에도 또 다른 다양한 상호지각의 일치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며, 여러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Acitelli, et al., 1993; Byrne & Blaylock, 1963; Oggins, Verrof, & Lever, 1993).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앞서 언급한 실제유사성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종류의 일치(즉 가정된 유사성과 이해)를 발견할 수 있고, 이러한 종류의 일치여부나 크기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성격이나 가치관 등에서 실제로 얼마나 유사한지 뿐만 아니라, 부부가 상대방의 그것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즉 지각의 정확성)도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Acitelli et al., 1993).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서로가 상대방의 특성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의 여부는 그들이 알고 지낸 시간과 관련된다(Kenny & Acitelli, 2001).

본 연구에서는 부부의 자신과 상대방지각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다양한 상호지각의 일치 정도와 그들의 결혼만족도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다루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자신에 대한 지각이 실제로 서로 비슷한 정도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지,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지, 아니면 정말 두 사람이 서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아는 정도가 클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은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 나아가 이러한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 정도가 남편과 부인 중 어떤 사람에게 더 많은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런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 정도가 결혼 기간이 길수록 높아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도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두 영역에서 부부간의 세 가지 상호지각 일치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 평가와 상대방 평가를 하도록 한 다음, 이를 근거로 그들 사이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산출하여 이것들이 그들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음에서는 부부간 상호

지각 일치도와 그 종류에 대해 살펴 볼 것이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유형

본 연구에서는 Kenny의 이자(dyad)관계 모형(Acitelli, Kenny, & Weiner, 2001; Kenny & Acitelli, 2001)을 기초로 하여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측정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자신에 대한 지각과 상대방에 대한 지각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두 지각의 차이 정도(크기)로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지각의 차이를 산출하는 준거에 따라 여러 종류의 상호지각의 일치유형이 나올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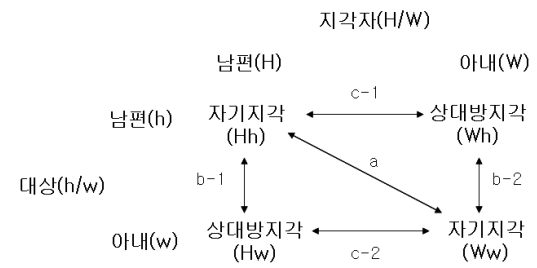


그림 1.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 유형

a의 일치도=실제유사성, b-1의 일치도=남편의 부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 b-2의 일치도=부인의 남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 c-1의 일치도=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 c-2의 일치도=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

부부와 같이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 이자 관계에서 상호지각의 일치성은 유형에 따라 실제유사성(actual similarity), 가정된 유사성(assumed similarity) 및 이해(understanding)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격의 경우, 남편(또는 부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과 부인(또는 남편)이 생각하는 자신의 성격이 얼마나 일치하는가의 정도는 실제유사성 크기로 볼 수 있다. 반면 가정된 유사성이란 상대방의 성격을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있는지의 정도이다. 마지막으로 이해란 상대방이 자신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정도이다(Acitelli et al., 1993).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해는 일종의 상대방에 대한 지각의 정확성(accuracy)으로 볼 수 있다(Kenny, 1994 참조).

실제유사성

여기서 실제유사성이란 대인 지각에서 두 사람 각각의

자기지각이 얼마나 유사한가에 대한 정도를 말하며, 이는 가정된 유사성과 구별하기 위하여 실제유사성이라 한다(그림 1에서 a). 예를 들어 부부의 경우 실제 성격유사성 크기는 남편의 자기 성격지각과 부인의 자기 성격지각간의 일치도 크기를 말하며, 이는 두 사람의 측정치의 차이(실제로는 차이의 절대값)로 알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차이가 작을수록 둘 간의 성격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의미로 이 ‘차이값’은 비유사성의 측정치이므로 차이값이 작을수록 부부간의 유사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성격이 유사한 부부일수록 그 가정의 불화가 적었으며 아이들이 정서적, 행동적으로 더 건강하였다(Dawson, 1991; Kline, Johnston, & Tschann, 1991). 또한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를 사용하여 성격, 취미, 결혼가치관, 가치관의 네 가지 영역에서 유사성 크기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알아 본 연구에서 부부의 결혼가치관의 유사성이 클수록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재홍, 전명진, 2003). 성격이 외에도 부부간의 의사소통 패턴의 유사성은 긍정적 방식에서보다는 부정적 방식에서 더 높았으며, 이것이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박영화, 고재홍, 2005). 여러 연구들을 근거로 Fletcher, Rosanowski 및 Fitness(1994)는 부부간의 유사성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초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일반적으로 이성관계에서 남성의 반응은 상대방 여자의 얼굴과 신체의 성적 매력에 영향을 많이 받는 반면, 여성의 태도, 신념, 및 취미 등은 비교적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여성의 반응은 상대방 남자의 태도, 신념 및 취미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Feingold, 1989). 이러한 성차 때문에 부부간 유사성 크기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는 남편에서보다 부인에게서 더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부부간의 유사성 크기에서 연령 효과는 잘 나타나지 않았다(Feng & Baker, 1994). 즉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해 진다는 증거는 희박하였다. 국내연구에서도 결혼 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성격 등 여러 측면에서 부부간 유사성이 증가한다는 증거는 없었다(고재홍, 전명진, 2003). 켈리종단연구(Kelly's Longitudinal Study)에서 나온 자료를 분석한 연구(Caspy, Herberner, & Ozer, 1992)에서도 시간이 지

날수록 부부간 성격의 유사성이 증가한다는 수렴가설은 지지되지 않았다.

가정된 유사성

가정된 유사성이란 한 사람이 자기의 파트너의 특성을 자신과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는 정도이다(Kenny & Acitelli, 2001). 그러므로 이는 양자간의 실제유사성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특성이나 생각이 자신의 그것들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하는 정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를 지각의 유사성(perception similarity)이라고도 하며,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과 유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일종의 착각이다. 부부인 경우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이란 남편의 자기지각(그림 1에서 Hh)과 남편의 상대방지각(Hw)간의 일치도를 말하며, 그 크기는 두 측정치의 차이값으로 측정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이란 부인의 자기지각(그림 1에서 Ww)과 남편에 대한 지각(Wh)간의 일치도이다.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대인관계에서 가정된 유사성은 대인간 인식의 조화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서, 대인관계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Byrne & Blaylock, 1963). Morry (2005, 2007)의 호감-유사성 모형(attraction-similarity model)에 따르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대방이 자신과 비슷하다고 지각한다는 것이다. 부부의 갈등 상황에서 행동과 감정을 다룬 Acitelli 등(1993)의 연구에서는 부부의 가정된 유사성이 실제유사성보다 결혼만족도에 더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부부들은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행동이나 감정이 자신과 서로 비슷하다고 생각할수록 더 상대방에 대해 만족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Kenny와 Acitelli(2001)도 성격 면에서 부부 사이에서 가정된 유사성은 오히려 실제유사성에 보다 결혼만족도와 더 밀접히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고재홍과 김명렬(2004)은 청소년의 학급짜깁 간 성격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를 근거로 그들의 가정된 유사성이 상대방에 대한 호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 본 결과,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는 짝에 대한 호감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처럼 가정된 유사성의 효과는 커플의 종류와 어떤 측면의 유사성이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해

여기서 이해란 어떤 사람이 자신을 지각(평가)하는 것과 다른 어떤 사람(배우자)이 그 사람을 지각(평가)하는 것 사이의 일치로 정의할 수 있다(Byrne & Blaylock, 1963). 보다 보편적인 개념으로 어떤 표적인물에 대한 어떤 평가자의 평가가 그 표적인물 자신의 평가와 일치한다면 평가자는 그 표적인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의미와 같은 이해이다. Kenny(1994)에 따르면 대인지각에서 이해는 지각의 정확성(accuracy)과 같은 의미로서 A가 B에 대해 정확하게 “지각”한다면, A는 B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이해란 부부가 배우자의 어떤 속성(예 : 성격)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부부 관계에서의 이해는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남편의 부인이해 정도란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크기를 말하는 반면, 부인의 남편 이해정도란 부인이 자신의 남편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에 대한 크기이다. 즉 전자는 남편의 상대방지각(Hw)과 부인의 자기지각(Ww)간의 일치도를 말하며, 후자는 부인의 상대방지각(Wh)과 남편의 자기지각(Hh)간의 일치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이해의 크기는 두 사람의 측정치(예 : 외향성 지각)의 차이의 절대값을 사용할 것이다. 차이의 절대값이 작은 사람일수록 배우자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의미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특성들을 판단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판단하는지를 연구해 왔다. 예를 들어 처음 만난 사람들도 상대방의 지배성과 사교성과 같은 성격 특성들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Chapdelaine, Kenny, & LaFontana, 1994). 또한 교우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는 서로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서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Dawes & Mulford, 1966), 한편 Kenny 등(1994)의 연구에서는 실제유사성과 가정된 유사성이 클수록, 이해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Kenny, et al., 1994). 한편 친구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크기가 그

들의 교우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도 있다(고재홍, 김명렬, 2004). 그러나 이들의 연구에서는 프로파일 일치도로 알아 본 청소년들의 학급 짝꿍에 대한 전반적인 성격의 이해 정도는 상대방에 대한 호감 크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를 다룬 Acitelli 등(2001) 부부연구에서는 갈등시 상대방이 갈등에 대처하는 행동에 대한 이해크기는 그들의 관계만족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편의 부인에 대한 갈등대처 행동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결혼생활의 불화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을 근거로 성격, 결혼가치관 등에서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및 이해)의 크기를 알아보고, 이것들이 결혼기간이 길수록 증가되는지, 또한 일치도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에서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가 클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박영화, 고재홍, 2005 참조). 부가적으로 기존 연구들에서 발견한 결혼만족도의 부부간 상호성을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다루었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크기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상호지각의 일치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부간 실제유사성은 한 가지이나 가정된 유사성과 이해의 지각은 남편과 부인 각자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해 내린 판단이므로 다시 각각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즉 남편의 부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과 부인의 남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으로 구분되고, 이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부인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정도(이해 크기)와 부인이 남편의 특성을 정확히 아는 정도가 다를 것이므로 전자는 남편의 부인이해, 후자는 부인의 남편이해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고재홍, 전명진 2003; Kenny & Acitelli, 2001)과 직관적 예상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성격과 결혼가치관 모두에서 이해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가정된 유사성, 실제유사성의 순서일 것이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경우, 상대방에 대한 의존정도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key & Canary, 2002).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의존이 상대적

1) 이 경우 판단의 준거는 “자기지각”이다. 그러므로 표적인물 자신이 잘 알고 측면에서만 일치도를 이해의 크기로 볼 수 있다. 만약 자신이 잘 모르는 측면에서의 일치도는 이해로 볼 수 없다.

으로 더 클 가능성이 있는 부인이 남편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정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결혼기간에 따라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증가하는가?

결혼 전 두 사람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를 불구하고, 결혼기간이 길수록 부부는 여러 측면에서 서로 유사해진다. 주장(Blankenship, Hnat, Hess, & Brown, 1984)이 수렴가설이다. 그러나 비록 종단적 연구는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를 검증한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 결과는 이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들의 연구는 자기지각을 근거로 부부간의 성격과 결혼가치관 유사성을 둘 간의 프로파일 유사성 지표를 근거로 알아보았다. 그 결과 부부간 유사성크기는 그들의 결혼 기간과는 관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공개(self-disclosure) 이론(Altman & Taylor, 1973)에 따르면, 자기공개 가장 중요한 동기는 ‘나’가 아닌 ‘우리’라는 연계이며, 이것이 또한 두 사람의 관계발달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친밀하지 않은 사람에게서는 자기 공개가 주는 두려움, 즉 거절이나 위협 또는 배신 때문에 진정한 자기 공개를 꺼린다. 그러나 자신이 신뢰하는 배우자나 아주 가까운 친구, 치료자, 종교적 충고자에게는 자기를 공개하기 쉽다. 부부는 결혼을 계기로 “우리”라는 관계를 형성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상대방에게 침투되어 서로 점점 더 깊고 넓게 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의 자기공개가 많아지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정확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결혼기간이 긴 부부일수록 배우자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클 가능성이 있다. 대인지각에 관한 Kenny 등(2001)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지낸 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서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지내는 특별한 관계인 부부간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는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지낸 시간(즉 결혼기간)에 달려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가정된 유사성의 경우 결혼 초기에는 자기와 배우자가 서로 유사하다는 착각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를 정확하게 알아가면서 서로가 유사한 측면이 많다는 착각(가정된 유사성)의 정도가 떨어

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부의 결혼가치관과 성격의 유사성크기와 이해크기가 결혼기간과 관련되는지를 재검증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부부의 결혼기간이 길수록 실제유사성과 이해의 크기는 증가할 것이지만, 가정된 유사성은 결혼 기간이 지남에 따라 오히려 작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가장 관련이 큰 일치도는 무엇인가?

갈등상황에서 부부가 대처하는 행동을 다룬 Acitelli 등(1993)의 연구에 따르면, 부부간에는 실제유사성보다는 가정된 유사성이 상대적으로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구체적인 행동지각을 다룬 반면, 보다 포괄적인 성격이나 가치관 지각을 다룬 것은 아니다. 또한 두 유사성크기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와 이해크기의 효과를 비교하지는 않았다. Altman과 Taylor(1973)의 사회침투이론에 의하면, 친밀관계인 양자(예 : 부부)에서 자기공개가 증가하면, 그들의 친밀도가 높아진다. 이를 근거로 볼 때,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유사성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일 것이다. 또한 남편과 부인의 비교에서는 남편보다는 부인의 남편이해가 결혼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가부장적 가정 내에서 통상 권력자(예 : 남편)는 피권력자(예 : 부인)의 특성을 잘 알아야 할 필요성이 적은 반면, 피권력자는 권력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을 때, 자신의 처신이 편하고 스트레스를 적게 받기 때문이다(Allen & Tompson, 1984).

부부의 결혼만족은 상호적인가?

상호성(reciprocity)이란 양자 관계에서 한 쪽의 행동대로 다른 쪽이 대응함을 의미한다. 상호성은 구체적인 행동의 교환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Tedeschi와 그의 동료들(Tedeschi, Gaes, & Rivera, 1977)은 상호성을 정적 상호성과 부적 상호성으로 구분하였다. 정적 상호성은 상대방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부적 상호성은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쳤다면 그 사람들도 또한 그만큼 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Kenny와 Nasby(1980)는 친밀관계(예 : 연인, 부부)간 호감의 상호성을 다룬 여러 연구들을 개관한 결과, 첫째 호감의 상호성이 존재하며 둘째, 양자

가 알고 지낸 기간이 길수록 호감의 상호성 크기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혼만족도를 다룬 연구에서도 부부간 상호성은 잘 나타나고 있었다(박영화, 고재홍, 2005). 예를 들어 부부 중 어느 한사람(남편)이 상대방(부인)에 대해 만족해 할 때, 상대방도 그 사람에 대해 만족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경성과 한덕웅(2001)의 주장에 따라 결혼만족도를 생활만족, 애정 및 헌신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우선 부부의 전반적 결혼만족도 간에 상호성이 존재하는지를 반복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결혼만족도의 생활만족, 애정 및 헌신 등 세 가지 하위 요인 중 어떤 요인의 상호성이 크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였다. 대인관계에서 양자간의 상호성은 특성보다는 호감차원에서 높게 나타난다는 주장(예 : Folkes & Sears, 1977; Kenny, 1994)에 근거하여 만족과 헌신보다는 애정 차원에서 부부간 상호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였다.

방법 및 절차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마산과 창원에 거주하는 결혼기간 1년 이상 된 부부 155쌍이었다. 이들 임의로 표집된 부부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제작된 일련의 설문지에 응답하는 형태로 연구하였다. 설문지는 남편용과 부인용으로 별도로 구성되어 자기 평가와 상대방 평가를 모두 하도록 구성하였다. 응답자의 개인적인 신상의 비밀 보장을 위하여 사전에 각 질문지에서 부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통 코드번호를 부여해 두었고, 응답자들에게는 익명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응답은 연구자가 응답자들의 집이나 직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응답하게 하고 수거했다. 일부 직접 만나지 못한 배우자의 경우, 반송용 봉투를 동봉한 우편으로 응답을 받아 정확성을 기하였다.

측정도구

성격지각

본 연구에서는 부부들의 성격에 대한 자기지각과 상대방지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태용, 김명언 및 이도형(1997)의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는 문항 중 Kenny, Kashy 및 Cook(2006),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를

참조하여 각 요인의 측정에 대표적인 문항들을 각 요인별로 임의로 두 문항씩 모두 10문항을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지각의 정서안정성 요인의 문항으로는 “나는 차분하다”, “나는 안정되어 있다” 등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자신과 상대방 각각에 대해 ‘전혀 아니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의 7점 척도 상에서 응답토록 하였으며,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로서 각 요인에 대한 자신과 상대방에 대한 평가치를 구하였다.

결혼가치관 지각

부부들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상호지각을 알아보기 위해서 Acitelli 등(2001)이 이상적인 결혼에 관한 조사를 할 때 사용하였던 13가지 항목들 중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고,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에서 사용한 항목들을 참조하여 네 가지 항목들(경제적 여유, 애정 표현, 성적만족, 종교나 정치 등에 관한 신념의 공유)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부부들에게 위의 4가지 각 항목이 각각이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혹은 배우자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당신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해 서로의 애정표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물음에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5점) 사이에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이경성과 한덕웅(2001), 박영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결혼생활만족, 애정(passion) 및 헌신의 세 가지 하위 영역을 측정하는 총 35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혼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은 총 10문항으로, 관계 속에서 본인이 느끼는 감정을 묻는 질문들(예 : 나는 현재 결혼생활에 만족한다, 나는 마지못해 남편과 함께 산다)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간 성적 열정을 포함하는 애정 영역에는 상대에 대한 친밀성을 나타내는 6문항(예 : 내 남편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과 애정을 측정하는 7문항(예 : 우리 부부는 서로 애정표현을 잘 하는 편이다) 등 총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부부관계에 대한 의존도를 측정하는 4

문항(예 : 만약 남편과 이혼한다면 자유롭게 홀가분할 것이다),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거에 투자한 수준을 측정하는 4문항(예 : 나는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수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과 책임감을 측정하는 4문항(예 : 나는 결혼관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다) 등 총 1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하위 영역의 평균 점수를 만족도 지표로 사용하였다. 박영화와 고재홍(2005)의 연구에서 보고한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Cronbach의 α)는 생활만족에서 남편 $\alpha=.90$, 부인 $\alpha=.90$, 애정에서 남편 $\alpha=.93$, 부인 $\alpha=.94$, 헌신에서 남편 $\alpha=.84$, 부인 $\alpha=.88$ 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한 각 하위 척도의 신뢰도(Cronbach의 α)는 생활만족에서 남편 $\alpha=.89$, 부인 $\alpha=.91$, 애정에서 남편 $\alpha=.89$, 부인 $\alpha=.88$, 헌신에서 남편 $\alpha=.79$, 부인 $\alpha=.78$ 이었다.

일치도 산출방법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각 쌍 부부의 자기평가 값과 상대방평가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구하였다. 예를 들어 실제유사성 지표로서 |남편의 자기(성격)지각 - 부인의 자기(성격)지각|를 사용하였다. 가정된 유사성 크기는 남편의 자기지각과 남편의 부인에 대한 지각의 차이(남편의 가정된 유사성 크기), 부인의 자기지각과 부인의 남편지각의 차이(부인의 가정된 유사성 크기)로 산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 크기는 부인의 남편에 대한 지각과 남편의 자기지각의 차이(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크기), 남편의 부인에 대한 지각과 부인의 자기지각의 차이(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크기)로 산출하였다.

예를 들어 A 부부의 경우 남편은 자신의 외향성 크기를 4.5라고 평가하고, 부인의 외향성은 5.0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부인은 자신의 외향성 크기를 4.0으로 평가하고, 남편의 외향성을 3.0으로 평가하였다고 하자. 이때 A 부부의 실제유사성(Hh-Ww)은 |4.5-4.0|, 즉 0.5이고,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Hh-Hw)은 |4.5-5.0|, 즉 0.5,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Hw-Ww)는 |5.0-4.0|, 즉 1.0이다. 반면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Ww-Wh)은 |4.0-3.0|, 즉 1.0,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Wh-Hh)는 |3.0-4.5|, 즉 1.5가 된다.

이상의 세 가지 부부 일치도를 근거로 먼저 결혼 기간에 따라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및 이해가 증가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부부의 결혼기간(개월)과 세 부부간 일치도 지표 간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둘째, 부부 일치도(특히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남편과 부인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부부(2)×일치도 종류(3)’의 변량분석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세 가지 부부간 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간의 단순상관 이외에도 일치도 지표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하였다.

결 과

기술통계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의 결혼기간은 1년 4개월-45년 사이이었으며 비교적 정규분포에 가까웠다. 이들의 평균 결혼기간은 16년 9개월(표준편차 8.4년)이었다. 결혼만족도는 7점 만점에 남편이 평균 5.59(표준편차 0.79), 부인이 평균 5.44(표준편차 0.79)로 결혼만족도가 다소 높은 집단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남편의 결혼만족도($M=5.59$)가 부인의 결혼만족도($M=5.44$)보다 더 높았으며, $F(1, 154)=5.38, p<.05$, 만족도의 하위 요인 중에서는 헌신($M=5.62$), 애정($M=5.50$), 생활만족($M=5.44$) 순이었다, $F(2, 154)=8.35, p<.05$. 생활만족에서는 남편($M=5.63$)이 부인($M=5.24$)보다 더 높았으나, $F(1, 154)=20.45, p<.05$, 애정과 헌신에서는 남편과 부인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각각 $F(1, 154)=1.33, F(1, 154)=0.34, ns$.

부부간 성격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

5가지 성격 요인에서 부부간 상호일치도를 산출한 다음, 그 평균치로써 성격의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및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를 산출하였다(표 1 참조).

각 일치도 유형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부부(2)×일치도 종류(3)의 반복측정 변량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부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F(1, 154)=0.25, ns$. 일치도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2, 308)=9.89, p<.001$. 이를 사후검정(LSD)한 결과, 실제유사성($M=1.06$)과 가정된 유사성($M=1.02$)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ns$.

표 1. 부부간 성격에 대한 상호지각의 일치도 평균(표준편차)

	성격 상호지각의 일치도 유형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
남편	1.06(0.47)	0.98(0.48)	0.93(0.53)
부인	1.06(0.47)	1.05(0.47)	0.89(0.43)

주. 수치는 부부간 차이의 절대값으로서 값이 작을수록 일치도가 큰 것임.

그러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M=0.91$)는 가정된 유사성($M=1.02$)과 실제유사성($M=1.06$) 크기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즉 부부간에는 실제 및 가정된 유사성보다도 상대방에 대해에 대한 이해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부에 따른 일치도 종류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308)=1.95, ns$.

부부간 결혼가치관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

부부들이 결혼생활에서 제시된 4가지 각 항목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평가한 자료를 기초하여 부부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근거로 산출한 부부의 결혼가치관에 대한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및 상대방 이해의 크기 평균은 다음과 같다(표 2 참조).

부부와 일치도 유형에 따른 일치도 크기를 변량분석한 결과, 먼저 남편과 부인 사이에 결혼가치관의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F(1, 154)=2.13, ns$. 반면 일치도 유형의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F(2, 308)=25.65, p < .001$. 이를 사후검정(LSD) 한 결과, 가정된 유사성($M=0.57$)은 실제유사성($M=0.79$)과 이해($M=0.80$) 보다 작았으며($p < .01$), 실제유사성과 이해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즉 부부간에는 서로 상대방의 결혼가치관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와 부부간 실제유사성

표 2. 부부간 결혼가치관에 대한 상호지각의 일치도 평균(표준편차)

	결혼가치관 상호지각의 일치도 유형		
	실제유사성	가정된 유사성	이해
남편	0.79(0.51)	0.52(0.50)	0.80(0.51)
부인	0.79(0.51)	0.62(0.50)	0.81(0.55)

주. 수치는 부부간 차이의 절대값으로서 값이 작을수록 일치도가 큰 것임.

보다는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생각(결혼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이란 믿음이 더 크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부에 따른 일치도 종류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2, 308)=2.06, ns$.

결혼기간과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간의 관계

부부들의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와 결혼기간 간의 관련성을 확인해 보았다. 이를 위해 성격의 경우, 5요인 각각의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평균하였으며, 결혼가치관의 경우도 4항목 각각의 일치도를 평균하여 이것들과 결혼기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 결과 성격, 결혼가치관과 결혼기간과 상관은 최하 -.01에서 최고 .16으로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의 관계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가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5요인 성격별 부부간 유사성, 이해크기 및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간 상관을 알아보았다(표 3 참조).

표 3에서 보듯, 성격의 하위요인 중 외향성과 교양성의 유사성과 이해는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호감성과 정서성에서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있을수록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호감성 $r = -.19$, 정서성 $r = -.17, p < .05$). 한편 성실성 요인에서 모든 부부간 지각일치도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제유사성(남편 $r = -.26$, 부인 $r = -.18$),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남편 $r = -.23$, 부인 $r = -.15$),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남편 $r = -.34$, 부인 $r = -.29$), 남편의 부인이해(남편 $r = -.24$, 부인 $r = -.21$), 부인의 남편이해(남편 $r = -.22$, 부인 $r = -.19$), 등이었다, $p < .05$. 특기할만한 점은 성실성 요인에서 유사성과 이해는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더 관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특히 부인의 남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은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었으나(남편 $r = -.34$, 부인 $r = -.29$), 남편의 부인에 대한 가정된 유사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만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남편 $r = -.23$, 부인 $r = -.15$), $p < .05$. 그러나 부인의 남편이해와 남편의 부인이해는 둘 모두 양쪽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이는 부분적이기는 하지

표 3. 부부간 성격 하위요인별 상호지각 일치도와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외향성		
실제유사성	-.09	-.06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14	-.09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03	.06
남편의 부인이해	-.00	-.10
부인의 남편이해	-.07	-.03
호감성		
실제유사성	-.01	.07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08	-.04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10	-.01
남편의 부인이해	-.13	.02
부인의 남편이해	.00	-.19*
성실성		
실제유사성	-.26*	-.18*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23**	-.15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34**	-.29**
남편의 부인이해	-.24**	-.21**
부인의 남편이해	-.22**	-.19*
정서성		
실제유사성	-.09	-.10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10	-.15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21*	-.05
남편의 부인이해	-.09	-.11
부인의 남편이해	-.18*	-.17*
교양성		
실제유사성	-.03	-.03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12	-.14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03	.07
남편의 부인이해	.04	-.07
부인의 남편이해	-.01	.08

* $p < .05$, ** $p < .01$ (양방향검증)

만, 실제유사성이나 가정된 유사성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결혼만족도와 더 관련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결혼가치관에서의 부부간 유사성, 이해크기 및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의 요약이 표 4이다.

표 4에서 보듯, 결혼가치관의 하위영역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와 결혼만족도는 다양한 관계를 보여주었다. 경제적 여유의 중요성 평가에서의 유사성과 이해는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더 높은 관련이 있었다. 특히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남편 $r = -.30$, 부인 $r = -.20$)이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과 관련되었으며, 부인의 남편이해는 자신($r = -.01$)보다는 남편의 결혼만족도($r = -.20$)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p < .01$. 그러나 남편의 부인이해 크기는 부부 모

표 4. 부부간 결혼가치관 하위요인별 상호지각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경제적 여유		
실제유사성	-.23**	-.15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30**	-.20*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07	.07
남편의 부인이해	-.02	-.17
부인의 남편이해	-.20*	-.05
애정표현		
실제유사성	-.37**	-.15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17*	-.14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13	-.15
남편의 부인이해	-.29**	-.14
부인의 남편이해	-.21**	-.04
성적만족		
실제유사성	-.20*	-.08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12	-.22**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02	-.18*
남편의 부인이해	-.27**	-.11
부인의 남편이해	-.17*	-.12
신념의 공유		
실제유사성	-.11	-.06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14	-.08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12	-.15
남편의 부인이해	-.09	-.03
부인의 남편이해	-.04	-.05

* $p < .05$, ** $p < .01$ (양방향검증)

두의 결혼만족과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남편 $r = -.02$, 부인 $r = -.17$, *ns*. 애정표현의 중요성 평가에서도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을 제외한 실제유사성(남편 $r = -.37$, 부인 $r = -.15$),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남편 $r = -.17$, 부인 $r = -.14$), 남편의 부인이해(남편 $r = -.29$, 부인 $r = -.14$), 부인의 남편이해(남편 $r = -.21$, 부인 $r = -.04$)는 주로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s < .05$. 성적 만족의 중요성 평가에서는 가정된 유사성(남편의 가정된 유사성 $r = -.22$,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 $r = -.18$)이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두 종류의 이해(남편의 부인이해 $r = -.27$, 부인의 남편이해 $r = -.17$)와 유사성($r = -.20$)과 관련되었다, $ps < .05$. 신념공유의 중요성 평가에서는 유사성과 이해 모두가 그들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특기할만한 점은 경제적 여유($r = -.23$)와 애정($r = -.37$), 성적만족($r = -.20$)의 중요성 평가에서 부부간 실제유사성 크기는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부

인의 결혼만족도와는 유의한 관련이 없었다. 그러므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결혼가치관의 다양한 부부일치도와 관련되지만,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주로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었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여기서는 성격과 결혼가치관 각각에서 하위요인을 구분하지 않고 부부간 상호지각 일치도를 산출한 다음, 어떤 유형의 일치도가 결혼만족도와 더 관련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결혼만족도의 경우에도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인 만족, 애정 및 헌신간의 상관인 남편의 경우 .63-.87 부인의 경우 .51-.82 등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들을 묶어 전체 결혼만족도로 보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두 영역 각각에서 5종류의 부부간 상호지각 일치도 크기로 남편과 부인의 각각의 결혼만족도를 예언하는 회귀분석(stepwise 방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성격에서의 부부간 상호지각 일치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요약은 표 5와 같다.

5가지 부부간 성격의 상호지각 일치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F(5, 149)=5.91, $p<.01$]와 부인의 결혼만족도[F(5, 149)=4.88, $p<.01$]를 일부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량은 각각 7%와 6%로 예상만큼 크지는 않았다. 먼저 실제유사성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모두 예언해 주지 못하였다. 반면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은 자신의 결혼만족도($\beta=-.21$, $p<.01$)뿐만 아니라, 부인의 결혼만족도($\beta=-.18$, $p<.05$)를 모두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자신과 성격 면에서 비슷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뿐 아니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함께 높았다. 반면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 효과는 없었다, 각각 남편만족도 $\beta=-.07$, 부인 자신의 만족도 $\beta=-.01$, ns.

한편 부인의 남편 성격에 대한 이해크기는 자신의 결혼만족도($\beta=-.15$)뿐만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beta=-.15$)를 모두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s<.05$. 즉 부인이 남편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수록, 자신뿐 아니라 남편의 결혼만족도가 함께 높았다. 반면 남편의 부인 성격에 대한 이해는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

2) 부부간 전체 성격일치도는 5차원에서의 부부간 일치도 값을 평균한 것이며, 부부간 전체 결혼가치관 일치도는 4항목에서의 부부간 일치도 값을 평균한 것이다.

표 5. 전체 성격에 대한 상호지각 일치도 크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β	t	β	t
실제유사성	-.05	0.59	.01	0.08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21	2.68**	-.18	2.28*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07	0.83	-.01	0.06
남편의 부인이해	-.05	0.65	-.08	0.90
부인의 남편이해	-.15	1.92*	-.15	1.94*

* $p<.05$, ** $p<.01$

지 않았다, 각각 남편만족도 $\beta=-.05$, 부인만족도 $\beta=-.08$, ns.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성격의 경우, 남편은 부인의 성격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부인은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았다. 다음 결혼가치관에서의 상호지각 일치도에 따른 결혼만족도의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5가지 부부간 결혼가치관의 상호지각 일치도는 남편의 결혼만족도[F(5, 149)=14.06, $p<.001$]와 부인의 결혼만족도[F(5, 149)=5.95, $p<.01$]를 유의하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량은 남편(약 16%)의 경우가 부인(약 7%)의 경우보다 약간 높았다. 먼저 실제유사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만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beta=-.30$, $p<.01$. 그러나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은 자신의 결혼만족도($\beta=-.17$, $p<.05$)뿐만 아니라, 부인의 결혼만족도($\beta=-.22$, $p<.01$)를 모두 유의하게 예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편이 자신의 부인이 자신과 결혼가치관이 비슷하다고 지각할수록 자신뿐 아니라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함께 높

표 6. 전체 결혼가치관에 대한 상호지각 일치도 크기에 따른 결혼만족도

	남편의 결혼만족도		부인의 결혼만족도	
	β	t	β	t
실제유사성	-.30	3.85***	-.03	0.36
남편의 부인 가정된 유사성	-.17	2.15*	-.22	2.72**
부인의 남편 가정된 유사성	-.03	0.45	-.13	1.57
남편의 부인이해	-.19	1.90	-.11	1.31
부인의 남편이해	-.08	0.87	-.03	0.37

* $p<.05$, ** $p<.01$, *** $p<.001$

았다. 반면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 효과는 없었다, 각각 남편만족도 $\beta=-.04$, 부인만족도 $\beta=-.13$, *ns*. 한편 남편의 부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와 부인의 남편 결혼가치관에 대한 이해크기는 모두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각각 남편만족도 $\beta=-.19$, $\beta=-.08$, 부인만족도 $\beta=-.11$, $\beta=-.03$, *ns*.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결혼가치관의 경우, 남편은 부인의 결혼가치관이 자신과 실제로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지만, 부인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결혼가치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상호성

부부간의 결혼만족도의 상호성을 결혼만족도를 구성하는 세 가지 하위 요인별로 알아보고 다시 전체 결혼만족도를 산출하여 부부간 상호성을 살펴본 결과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 상호성은 표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두 유의하였다.

표 7. 부부간 결혼만족도의 상호성 크기(상관계수)

	남 편			
	생활만족	애정	헌신	전체
아 내	.46**	.57**	.38**	.55**
생활만족				
애정				
헌신				
전체				

** $p < .01$ (양방향검증)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부의 결혼만족도는 전체 결혼만족도 뿐만 아니라 모든 하위요인에서 상호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 중 어느 한 쪽(예 : 부인)의 결혼만족도가 높으면 다른 한 쪽(예 : 남편)의 결혼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결혼만족도의 하위요인별 상호성크기는 애정의 상호성($r=.57$), 생활만족의 상호성($r=.46$), 헌신의 상호성($r=.38$) 순서이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특별한 이자 관계인 부부간 상호지각 일

치도 크기와 그들의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155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두 영역에서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가 결혼기간에 따라 달라지는지, 부부간 상호지각 일치도의 크기는 남편과 부인의 경우 다른지, 일치도 크기가 부부 각자의 결혼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주요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를 변량 분석한 결과 성격과 결혼가치관 모두에서 남편부인 사이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만 성격에서는 ‘이해’의 크기가 실제유사성과 가정된 유사성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혼가치관에서는 이와 달리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가 다른 두 지각인 유사성과 이해의 크기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부가 서로 성격을 지각하는 데는 실제 및 가정된 유사성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더 크고, 결혼가치관에 대한 지각은 상대방이 자신과 같은 생각(결혼가치관)을 갖고 있을 것이란 믿음이 가장 크다는 의미이다. 이는 더 나아가 상호지각의 일치도와 결혼만족도간의 관계에 대한 물음의 가치를 높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부부의 성격과 결혼가치관에서의 상호지각 크기는 결혼기간과 관련이 없었다. 단지 다른 상호지각 일치도 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이해크기는 결혼기간과 정적 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는 결혼생활이 길어질수록 여러 측면에서 부부가 서로 유사해진다는 수렴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부부 유사성이 결혼 기간과 무관하다는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결혼 초기에는 배우자를 정확히 이해하기보다는 자신과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된 유사성이 클 수 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는 작아지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한 본 연구의 가설이 지지되지 않았다.

셋째, 부부간 상호지각의 크기와 결혼만족도의 관계는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영역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우선 성격 영역에서는 성실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에서 유사성은 부부의 결혼만족과 아무런 상관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것은 고재홍과 전명진(2003)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호감성과 정서성은 부인의 남편이해가 부인 자신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성실성의 경우 5

가지 상호지각 일치도 모두가 부부 각각의 결혼만족도와 관련성이 높았으며, 특히 부인보다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더 관련이 높게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한 하다. 하위요인 중 외향성과 교양성의 부부간 지각 일치도는 결혼만족과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또한 부분적으로 실제유사성이나 가정된 유사성보다 상대방에 대한 이해의 크기가 결혼만족도와 더 관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성격 영역을 종합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부인의 남편이해 크기와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의 크기가 모두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즉 남편은 부인 성격이 자신과 유사하다고 가정할수록, 부인은 남편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있을수록 부부의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것이다.

한편 실제유사성은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무관하였다. 이는 성격에 대한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에서 두 유사성보다는 이해의 크기가 결혼만족도와 긴밀한 관계를 보일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상을 부분적으로 지지해주는 결과이다. 특히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점도 특기할 만하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존정도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이해크기가 다르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Lahey & Canary, 2002). 특히 전통적인 부부관계에서 부인의 남편에 대한 의존정도가 남편의 부인에 대한 의존정도에 크기 때문에 남편의 태도, 신념 및 취미 등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Feingold, 1989).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친밀성과 배려성이 더 크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크고, 이러한 부인의 이해크기가 (특히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하다.

다음으로 결혼가치관에서 부인의 결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인 것은 경제적 여유와 성적만족에서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뿐이었다. 반면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경제적 여유, 애정, 성적만족에서 부부간 상호지각일치도가 모두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즉 신념의 공유 항목을 제외한 세 항목 모두에서 유사성이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었으며, 남편의 부인이해와 부인의 남편이해도 남편의 결혼만족도와만 유의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애정 항목에서 남편의 결혼만족도는 부인의 가정된 유사성을 제외한 나머지 네 상호지각일치도와 모두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나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어떤 것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름을 시사하였다.

이를 전체 결혼가치관으로 묶어 회귀 분석한 결과 남편의 가정된 유사성만이 부부 모두의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언해 주었으며, 특이하게 유사성(실제유사성)이 남편의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언하였다. 다시 말해 남편은 부인의 결혼가치관이 자신과 실제로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지만, 부인은 남편이 부인 자신의 결혼가치관과 유사하다고 생각할수록 자신의 결혼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부부 유사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연구한 고재홍과 전명진(2003)이 가치관, 결혼관, 성격, 취미의 네 가지 차원 중 유일하게 결혼관의 유사성만이 남편과 부인 모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부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고, 함께 살아가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된 유사성은 줄어들고 대신 이해가 높아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예상은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부부간의 상호지각의 크기와 결혼기간의 관계가 직선적이지 아니라 곡선적일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즉 결혼초기에는 결혼기간이 길수록 유사성과 이해가 증가하고, 가정된 유사성은 감소하지만, 어느 정도 결혼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증가(혹은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경우 결혼기간과 상호지각의 일치도는 곡선적 관계이므로 둘 간의 상관이 유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의 결혼기간을 기준을 4 집단(10년 미만, 11-17년, 18-21년, 22년 이상)으로 대략 25%씩 분류한 다음 집단별 상호지각의 일치도를 비교해 본 결과, 결혼기간과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간의 곡선적 관계에 대한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결혼기간에 따른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 변화는 궁극적으로 종단적 연구를 통해 밝혀야 할 과제이다.

특히 결혼가치관에 있어 남편은 경제적 여유와 애정, 성적만족의 항목에서 유사성을 포함한 다양한 부부간 일치도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인은 극히 일부 항목에서 부부간 일치도가 결혼만족도와 관련되었다. 이 결과가 본 연구에서만 나타난 국지적인 것인지의 여부는 앞으로 방법을 달리한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이다. 그러나 남편과 부인이 결혼생활 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중요 변인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상호지각의 크기를 성격과 결혼가치관이란 제한된 두 영역에서만 조사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예언하는 분석을 하였다. 또한 성격과 결혼가치관의 지각을 측정하는 문항들도 연구자들이 기존 연구들을 참조하여 임의로 선정한 소수의 문항들이었다. 이런 문항 선정의 임의성으로 인해 성격이나 결혼가치관의 유사성 등과 같은 변인의 결혼만족도에 대한 설명력이 다소 적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후의 후속연구는 성격이나 결혼가치관뿐만 아니라 부부 각자의 심리적 욕구(예 : 한소영, 신희천, 2006)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유사성이나 이해에 따른 결혼만족도 효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특별한 이자 관계인 부부간 실제유사성뿐만 아니라 가정된 유사성과 이해라는 복잡한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를 측정 후 이 측정치들과 부부의 결혼만족도와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를 부부간의 차이점수라는 단순한 방식으로 산출하였다. 부부간 상호지각의 일치도 크기를 산출하는 방법은 차이점수 이외에도 다양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일치도를 측정하느냐의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다. 이미 오래 전에 Cronbach와 Gleser(1953)는 유사성의 지표(Indices of similarity)를 차이의 절대값, 변산성 및 프로파일의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있다. 즉 부부연구에서도 단순한 차이점수 이외에도 부부간 프로파일의 일치도를 알아보는 방법(예 : 고재홍, 전명진, 2003)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의 연구들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부부간 상호지각의 크기를 산출하여 이것이 부부에게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다면, 부부간 상호지각에 관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많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고재홍, 김명렬 (2004). 청소년 교우간 성격 유사성, 상호

성, 이해 및 호감과의 관계. 청소년 상담 연구, 12(1), 53-64.

고재홍, 전명진 (2003). 부부의 유사성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프로파일 유사성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7(3), 1-16.

권정혜 (2000). 지각된 배우자 비판과 우울.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4), 697-712.

김선영, 김영희 (2005). 결혼만족도와 이혼의도에 관련된 부부관계요인 : 신혼 초와 현재 결혼생활의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3(9), 41-57.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 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9(1), 65-83.

유태용, 김명언, 이도형 (1997). 5요인 성격검사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산업 및 조직, 10(1), 85-102.

이정은, 이영호 (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 사소통 패턴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19(3), 531-548.

이종선, 권정혜 (2002). 부부의 대인관계, 의사소통 패턴 방식, 결혼만족도가 부부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임상, 21(2), 313-330.

이경성, 한덕웅 (2001). 부부관계에서 배우자 행동의 귀인이 결혼만족과 이혼 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41-64.

한소영, 신희천 (2006).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 중요성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8(4), 817-835.

허윤미 (2001). 심리적 및 신체적 특성의 동질결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20(2), 429-448.

Acitelli, L. K., Douvan, E., & Veroff, J. (1993). Perceptions of conflict in the first year of marriage: How important are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0, 5-19.

Acitelli, L. K., Kenny, D. A., & Weiner, D. (2001). The importance of similarity and understanding of partners' marital ideals to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sonal Relationships*, 8, 167-185.

- Allen, A., & Thompson, T. (1984). Agreement, understanding, realization, and feeling understood as predictors of communicative satisfaction in marital dyad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915-921.
- Altman, I., & Taylor, D. A. (1973). *Social penetration: The development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NY: Holt, Rinehart, and Winston.
- Berscheid, E., & Walster, E. (1978). *Interpersonal attraction*(2nd ed.) Reading, MA: Addison-Wesley.
- Blankenship, V., Hnat, S. M., Hess, T. G., & Brown, D. R. (1984). Reciprocal interaction and similarity of personality attribute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1, 415-432.
- Byrne, D. (1971). *The attraction paradigm*.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Byrne, D., & Blaylock, B. (1963). Similarity and assumed similarity of attitudes among husbands and wiv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36-640.
- Caspi, A., Herbener, E. S., & Ozer, D. J. (1992). Shared experiences and the similarity of personalitie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281-291.
- Chapdelaine, A., Kenny, D. A., & LaFontana, K. M. (1994). Matchmaker, matchmaker, can you make me a match?: Predicting liking between two unacquainted pers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3-91.
- Corsini, R. (1956). Understanding and similarity in marriag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2, 327-332.
- Cronbach, L. J., & Gleser, C. C. (1953). Assessing similarity between profiles. *Psychological Bulletin*, 50, 456-473.
- Dawes, R., & Mulford, M. (1966). The false consensus effect and over-confidence: Flaws in judgement or flaws in how we study judgement?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65, 201-211.
- Dawson, D. A. (1991). Family structure and children's health and well-being: Data from the 1988 National Health Interview Study on Child Healt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573-584.
- Feingold, A. (1989). *Gender differences in effects of attractiveness and similarity on opposite sex attraction: Integration of self-report and experimental finding*. Unpublished manuscript, Yale University, CT: New Haven.
- Feng, D., & Baker, L. (1994). Spouse similarity in attitudes, personal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Behavior Genetics*, 24, 357-364.
- Ferreira, A. J., & Winter, W. D. (1974). On the nature of marital relationship: Measurable differences in spontaneous agreement. *Family Process*, 13, 355-370.
- Fletcher, G. J. O., Rosanowski, J., & Fitness, J. (1994). Automatic processing in intimate contexts: The role of close relationship belief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888-897.
- Folkes, V. S., & Sears, D. O. (1977) Does everybody like a liker?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3, 505-519.
- Hawkins, J. L. (1968). Association between companionship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0, 647-648.
- Hill, C. T., & Peplau, L. A. (1998). Premarital predictors of relationship outcomes: A 15-year follow up of the Boston Couples Study. In T. N. Bradbury(Ed.), *The developmental course of marital dysfunction*.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1994). *Interpersonal perception*. NY: Guilford Press.
- Kenny, D. A.,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 Kenny, D. A., & Acitelli, K. (1994). Measuring

- similarity in coupl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417-431.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Y: Guilford Press.
- Kenny, D. A., & Nasby, W. (1980). Splitting the reciprocity corre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8, 249-256.
- Kline, M., Johnston, J. R., & Tschann, J. M. (1991). The long shadow of marital conflict: A model of children's postdivorce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297-309.
- Lakey, S. G., & Canary, D. J. (2002). Actor goal achievement and sensitivity to partner as critical factors in understanding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nflict strategies. *Communication Monographs*, 69, 217-235.
- Morry, M. M. (2005). Relationship satisfaction as a predictor of similarity ratings: A test of the attraction-similarity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22, 561-584.
- Morry, M. M. (2007). The attraction-similarity hypothesis among cross-sex friends: Relationship satisfaction, perceived similarity, and self-serving percep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 24, 117-138.
- Oggins, J., Verrof, J., & Lever, D. (1993). Perceptions of marital interaction among black and white newly-wed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494-511.
- Rice, P. F. (1979). *Marriage and parenthood*. Boston: Allyn and Bacon.
- Schachter, S. (1951). Deviation, rejection, and communication. *Journal of Abnormal Social Psychology*, 46, 190-207.
- Tedeschi, J. T., Gaes, G. G., & Rivera, A. N. (1977). Aggression and the use coercive power. *Journal of Social Issues*, 33, 101-125.

The Relationships of a Married Couple's Perception Congruence to Marital Satisfaction

Hyang Ryeun Kim Jaehong Ko
Kungnam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purport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between several indices of perception congru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arried couples. Specifically it was carried out to find whether indices of perception congruence depend on marriage periods, domains, husbands and wives' beliefs and finally whether they are related to marital satisfaction. Data was collected from 155 married couples in Masan and Changwon. They did respond on prepared questionnaire to find out perceptions of the self and his(her) spouse on personalities and beliefs of marriage. Perception about personalities was measured in five domains based on Big 5 personality traits and perception about beliefs of marriage in four domains. The major results are followed : First, there was no meaningful relations between couple's marriage periods and all indices of their perception congruence. Second, in personalities couple's understanding of his(her) spouse was greater than actual and assumed similarity. In beliefs of marriage, assumed similarity that a spouse has the same beliefs of marriage was greater than other measures of perception congruence. Last, the effect on measures of perception congruence on marital satisfaction was different in personalities and beliefs of marriage. In personalities, the greater husband's assumed similarity and wife's understanding were, the greater their marital satisfaction was. In beliefs of marriage, However, the greater actual and assumed similarity of husband was, the greater the his marital satisfaction was. While the greater the wife's assumed similarity was, the greater her marital satisfaction was.

Keywords: Married couple; Actual similarity; Assumed similarity; Understanding; Marital satisfaction

원고접수 : 2007년 4월 12일
심사통과 : 2007년 5월 9일